

■ 시론

2001년 우리 광고의 화두 'fundamental'



▲전상열
한국 광고주협회전무

IMF체제를 전후해서 그렇게 회자되던 '우리 경제의 fundamental'. IMF 극복과 함께 벌써 잊혀져가고 있다. 1999년 IMF의 되서리 속에서 최악의 상태를 맞았던 광고시장도 2000년에는 급반전되어 광고비에서 역사 이래 최상의 시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2001년, 광고계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예감한다. 일부에서는 IMF 때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의 위기에서 화두는 '우리 경제의 fundamental'이었다. 이제 2년 사이 최악과 최상을 번갈아 경험한 우리 광고계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화두가 바로 '우리 광고의 fundamental'이다.

2001년은 우리 광고의 fundamental을 광고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광고산업 전반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fundamental의 강건함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광고의 fundamental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한 마디로 너무나 취약하다.

외양으로는 화려하고 규모가 커지고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었지만 밑의 뿌리는 허약하기 그 지없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광고주 부문을 보자. 하나의 기업 속에서 광고 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형편에 따라 광고의 관심도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음은 1999년과 2000년의 총광고비 비교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비용절감에서 제일 먼저 잘려나가는 것이 광고비와 접대비인 실정이다.

국가산업 측면에서도 광고산업은 과소 평가되고 부정적 측면만이 늘 강조되고 있다. 광고의 역동성은 바로 경제의 역동성의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것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후진적 사고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는 중간광고의 좌절을 경험했다. 부정확한 근거에 바탕한 일부 시민단체의 저항과, 이해관계에 따라 논조를 편 신문사들의 반발, 이에 대해 합리성과 타당성은 무시되고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 우리 정부의 광고인식의 취약함을 증명하였다.

매체부문을 보면 더욱 답답해진다. 광고도 경제의 틀에서 움직이는 엄연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효율의 극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과학적 통계, 합리적 룰, 거래의 신뢰성 모두에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학문적으로는 어떤가? 지금 우리 대학에는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광고산업에 종사를 꿈꾸며 광고관련학과를 지망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 틀은 과연 그들을 충족시킬 만큼 튼튼한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광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의 경제적 가치를 학문적으로 연구 정리하려는 시도는 약했다. 학계에서 광고의 미시적 접근에 천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광고를 둘러싼 제도, 법규, 관행 등의 환경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분야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이때, 여전히 존재하는 전근대적 관행, 제도, 규제들. 광고에 대한 사전검열, 이중삼중으로 조여드는 규제들, 방송 광고 영업 대행사업자 문제를 놓고 상식을 초월한 정치적 논리로 풀려는 전제적 사고, 그뿐인가 시민단체까지 끼어 들어 한 몫을 달라고 주장하고 또 그 주장이 먹히는 것이 한국 광고산업의 현실이다.

이제 2001년 광고계의 화두를 '우리 광고의 fundamental'로 설정하면서 그 화두를 푸는 열쇠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와 리서치에 근거한 과학적인 접근

둘째,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룰의 적용

셋째, 광고 효율의 극대화

광고시장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여기 저기 묶어 놓은 매듭을 풀어 광고라는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에 피를 원활하게 유통시키는 일이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 제도, 법규, 관행에서 비롯된 기득권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고계는 거시적 안목으로 공동의 보조를 통해 이에 용기 있게 저항하고 대처하는 2001년이 되었으면 한다.